

# 신시기 중국 산문의 세계화와 민족화\*

김 회 준\*\*

## <목 차>

1. 머리말
2. 신시기 중국 산문의 부침
3. 신시기 중국 산문의 특징적 변모
4. 맺음말

## 1. 머리말

1976년 이후 중국은 이른바 '신시기'에 들어섰고, 중국 사회 전체의 변화와 더불어 문학 방면 역시 심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 중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문학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여 문학의 의미와 법적성이 새롭게 탐구되기 시작했다. 이 점과 국외의 문학사조와 문학형태가 적극 수용되기 시작했다. 신시기의 중국 문학에 나타난 이같은 현상은, 일종의 사상 혁신적 성격과 적극적인 대외 개방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현대문학 초기의 현상과 견주어 볼 만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형태는 아니었다. 1917년 이래의 성취와 오류 양면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사회적 현실에 상응하는 제고된 인식이 그 근거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완전 부정 및 외국의 문학에 대한 전반 수용이라든가, 과거의 문학에 대한 전면 계승 및 외국의 문학에 대한 전적 거절과 같은 극단적인 태도 대신에, 종적 계승과 횡적 수용 양자에 대해 모두 의식적이고 선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문학가들은 문학의 세계화와 민족화 문제를 두고 그 동안 갖가지 시도를 해왔으며,

\* 이 논문은 1995년 교육부 교수 해외파견기금으로 작성된 논문임.

\*\*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이제 다시금 새로운 그리고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 문학가들의 바로 이와 같은 모색이 구체적으로 신시기의 산문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시기의 중국 산문이 어떠한 흐름과 특징적인 변모를 보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것은 신시기 중국 산문에 나타난 세계화와 민족화에 대한 모색의 그 시간적 추이와 공간적 전개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는 산문이란, 잡문·정론·보고문학·전기문학 등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주로 서정성에 치중하면서 서사와 의론을 융합하는 소품·수필 등의 협의의 개념이다.<sup>1)</sup> 끝으로, 이 글은 中國文聯出版公司的 《中國新文藝大系 1976-1982 散文集》이라든가 연도별로 출판된 上海文藝出版社의 《八十年代散文選》·《九十年代散文選》 등과 같은 선집류 약 20종 및 余秋雨의 《文化苦旅》와 같은 개별 작가의 산문집 약 40종에 실린 작품만을 그 대상으로 했다.

## 2. 신시기 중국 산문의 부침

1976년 이래 중국에서는, 周恩來의 사망과 4·5 天安門 사건, 毛澤東의 사망과 4인방의 몰락, 華國峰 체재의 등장과 ‘두 가지 무릇’ 구호 제기, 鄧小平의 재복권과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주장의 제기, 중공 제11기 3중전회에 의한 사상·정치·경제·조직 등 모든 면에서의 방향 전환 및 이를 통한 鄧小平 체재의 성립,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의 실시, …… 등 일련의 정치적 변동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러한 정치상의 변화는 단순히 권력 담당자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후 중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자 바로 그러한 변화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중국 사회는 그 동안의 단일하고 폐쇄적이고 정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새로운 면모를 보이면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다. 사회적

1) 중국 산문의 범주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애초 고대에는 문학 작품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특별한 격률이 요구되지 않는 시가 이외의 모든 문장을 의미했다. 그후 여러 단계의 변천을 거쳐, 현대에 와서는 시·소설·희극과 더불어 대개 수필·소품문·잡문·보고문학 등을 포괄하는 문학의 한 체재를 이르게 되었다. 신시기에 들 어선 이후로는, 보고문학이 성황을 보이게 되면서 이를 산문과 병렬되는 문학의 한 체재로 간주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잡문 등도 그 문체적·심미적 특징을 고려 해서 이미 산문과 분리해 파악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변화에 상응해서 문학 분야 역시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 점에 있어서 그 한 부분으로서의 산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 상혼산문

신시기 초기 중국 산문은, 중국 사회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나 또 그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성취를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대혁명이 막 종결되고, 지난 시기에 대한 반성(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을 행함에 있어 아직은 다소간의 혼란과 주저함이 존재하는 가운데, 소설을 제외한 문학의 여타 분야에 비해 산문 분야에서 이에 대한 작업이 비교적 먼저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巴金の 《隨想錄》<sup>2)</sup>을 위시한 일련의 ‘상혼산문’의 등장 및 그에 대한 강렬한 반향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때문에 혹자는 “‘상혼산문’ [……] 그 성과는 ‘상혼소설’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고 평가한다.

상혼산문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애도산문’으로, 문혁 기간에 박해를 받아 사망한 가족이라든가 문화예술계 및 학술계 인사 등을 추모하거나 아니면 그 외 이미 사망한 지도자급 인물을 추념하면서 이를 통해 문혁의 재앙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懷念蕭珊>(巴金)·<一封終於發出的信>(陶斯亮)이라든가 <幽燕詩魂>(丁寧)·<遠的懷念>(孫犁) 또는 <臨江樓記>(何爲) 등의 작품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한 가지는 ‘회고산문’으로, 문혁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체험한 바를 술회하면서 문혁의 비극을 드러내는 한편 그러한 비극의 원인에 대해 깊이 있는 사색을 행한 것이다. <“牛棚”小品>(丁玲)·《幹校六記》(楊絳)·《雲夢斷憶》(陳白塵) 등이 그러하다. 이들 산문은 이처럼 문혁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낳은 상혼을 표현하고 그 비극의 근원과 현존하는 갖가지 부조리한 폐단을 고발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또 이들 산문은 지난 시기의 중국 산문이 그 동안 사회적 주제에만 함몰되어 있던 데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는데, 예컨대 <懷念蕭珊>(巴金) 처럼 부부나 골육의 정을 진솔하게 토로한 것 등이 그러하다.

2) 《隨想錄》(1979)·《探索集》(1981)·《真話集》(1982)·《病中集》(1984)·《無題集》(1986)의 다섯 권으로 나누어 출판된 1978-1986년 사이의 작품 150편에 대한 통칭임.

3) 余樹森, 《中國現當代散文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3), P.68.

## 개혁개방산문

신시기의 중국 산문은, 상흔산문이 고조를 보이기 시작할 무렵, 중국 사회의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이라는 추세와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약동적인 변혁의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를 '개혁개방산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인데, 예컨대 <大學：風俗圖>(陳村)·<疾飛吧! 鋼鐵的百鳥>(陳俊年) 등 사회상의 변화와 활력을 보여준 것, <姑娘的手>(成宗田)·<八月的故鄉—你好>(郭保林) 등 농촌과 농민의 변모를 보여준 것, <上海兵的问候>(吳芝麟)·<法卡山前線散記>(柯原) 등 국방에 전념하는 군 본연의 모습과 사기를 보여준 것, <望截流>(劉眞)·<崩雲瀉玉煤海情>(王葆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광공업 분야의 활기를 보여준 것, <你早, 年輕的上海>(趙麗宏)·<深圳濤聲>(戴勝德) 등 上海나 深圳 같은 특정 지역을 시작으로 차츰 확대되고 있는 일련의 경제적 개혁을 보여준 것, <光華呵, 光華!>(石英)·<風雨太平洋>(王文杰) 등 해외 진출 및 개척을 보여준 것 등등이 그러하다. 이처럼 이들 개혁개방산문은 중국 사회의 약동적인 면모를 보여 주면서 격변하는 새로운 생활의 표현과 그로 인한 걱정 및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들 산문은 시대의 조류를 보여준 점에서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기는 했으나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성취나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구호적인 용어를 남용한 것이라든가, 작가의 의도가 수시로 삼입되어 전체적인 리듬을 손상시킨 것이라든가, 시종 격앙된 어조를 유지함으로써 정서적인 감동력이 결핍되어있는 것이라든가 하는 등의 현상이 비교적 일반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인성산문'이다.

## 인성산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혁이라는 재앙 및 그 이전 시기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재인식 특히 개체로서의 인간의 의의를 인정하는 사조가 점차 확산되었다. 거기다가 비록 1979년의 4항기본원칙 제시라든가 1983년의 정신오염척결운동과 같은 것이 있기는 했지만, 4개현대화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의 실시는 중국 사회에 다소간 여유있는 분위기를 제공해 주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 문학 분야에서는 그 동안 부정해왔던 인성에 대한 재조명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인성 인도주의의 논쟁 및 주체성 논쟁이 발생했는가 하면, 산문 분야에서는 '인성산문'이 출현했다. 이들 산문은

혹 <離合悲歡的三天>(田野)·<妻頌>(丁耶) 등과 <丁香花下>(黃秋耘)·<參星與商星>(陳慧瑛) 등 처럼 부부의 정이나 남녀간의 애정을 표현하거나, 혹 <游子吟>(和谷)·<理髮的悲喜劇>(堯山壁)·<銀杏樹, 沙沙響>(呂錦華)·<奶奶的小把戲>(蔣麗萍) 등 처럼 혈육간의 정을 표현하거나, 혹 <揀麥穗>(張潔)·<盯梢>(張潔)·<我有過一只小蟹>(鐵凝) 등 처럼 잃어버린 동심을 표현하거나, 혹 <丑石>(賈平凹)·<小屋>(李佩芝)·<紫藤羅瀑布>(宗璞) 등 처럼 작가 내심의 정서·정감을 과감하게 표현했다. 이들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계급성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또는 집체가 아닌 개아로서의 인간 내심의 토로와 인격의 발로와 같은 것은, 즉 인성에 대한 강렬한 추구는 집체로서의 인간과 사회만이 강조되던 이전 시기의 산문에서는 보기 힘든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미적 쾌감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이후 신시기 중국 산문이 점차 개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긍정과 탐구 및 그로부터 출발하는 사회와 삶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탐색으로 나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각자의 개성에 근거하는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견케 하는 단초였다.

### 뿌리찾기산문

그러한 단초는 한편으로 개혁과 개방에 따른 외부와의 접촉 기회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서방 세계는 물론 香港과 臺灣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중국의 대외 개방은 일차적으로는 외부 세계와 인물을 제재로 한 작품의 증가를 불러 일으켰다. 예컨대 <羅馬>(劉白羽)·<故國情>(韋君宜)·<在斜塔下>(穆青)·<東京夜話>(何爲)·<友誼似海深>(周而復)·<曼哈頓街頭夜景>(丁玲)·<美國之行>(蕭乾)·<德美兩國紀行>(王蒙)·<法國, 一個春天的旅行>(徐遲)·<夢裏澳洲>(從維熙)·<天涯何處無芳草>(柯岩)·<仰光夜宴>(姜德明)·<竹風>(鄧友梅)·<遠足野餐>(葉君健) 등과 같은 작품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외개방의 결과는 이런 단순한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심원한 영향을 주었으니 ‘뿌리찾기산문’이라든가 ‘新潮散文’의 등장도 바로 그것이다.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의 사회주의적 문화 의식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문화 의식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서방문화의 대량 수용은 이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 전통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다른 일단의 사람들은 그에 반발하여 민족문화의 유산 속에서 정신적 의지처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

런 한편에서는 서방문학을 수용하여 자기 식으로 재탄생시킨 남미문학의 성공 이라든가, 臺灣·香港과의 접촉이 늘어남에 따른 이들 지역의 郭楓·余光中·三毛·龍應臺·梁實秋·許達然·楊牧·張曉風 등의 '문화산문'의 영향이 또 일정한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대적 사상의 층차에서 민족문화를 돌이켜 보고, 단절된 민족문화의 근원을 찾아내어 민족정신과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재건하면서, 그 과정에서 역사적인 각성과 미적인 향수를 얻어내고자 하는 '뿌리 찾기산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작품은 혹 <靜虛村記>(賈平凹) 등 처럼 전원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쓰거나, 혹 <寫給故鄉的黃昏>(郭保林)·<故鄉的食物>(汪曾祺) 등 처럼 고향의 친근함을 쓰거나, 혹 <水鄉茶居>(楊羽儀)·<安賽腰鼓>(劉成章) 등 처럼 풍속·민속을 쓰거나, 혹 <弈人>(賈平凹)·<黃河古渡>(和谷) 등 처럼 민정·세태를 쓰거나, 혹 <登陵憶>(楊聞宇)·<大唐的太陽, 你沉淪了嗎?>(王英琦) 등 처럼 고대문화에 대한 회고를 쓰거나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중국의 민족정신과 문화전통을 탐색하는 깊이 있는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또 자연적으로 문화적 의미와 지역주의의 결합 형태를 보여 주었고, 이 때문에 賈平凹·和谷·劉成章·楊聞宇 등의 '黃土散文'(西北), 郭保林·山曼의 '齊魯散文'(魯西北), 淡墨의 '高原散文'(雲南)과 같은 말을 낳기도 했다.<sup>4)</sup> 그 외에도 이러한 '뿌리찾기산문'의 영향은 여행산문 분야에도 나타나서, <峨嵋山人>(吳泰昌)·<千佛洞夜話>(王維洲) 등의 다수 작품이 단순히 자연 풍경에 대한 표면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문화적 심층에까지 파고들기도 했다.

### 신조산문

1985년을 전후하여 그 동안 금기시해왔던 서방의 각종 예술 풍격과 유파가 잇따라 중국 내에 번역 소개되었고, 일단의 젊은 작가들은 서방작가의 창작 기법과 풍격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문학에는 서방모더니즘의 부조리·마환·블랙유머·상징·의식의 흐름 등의 방법을 사용한 이른바 '선봉문학'이 출현했다. 산문 분야에서도, 비록 '선봉문학'이란 조류의 주류가 되지는 못했지만, 王蒙·何爲·賈平凹·王英琦·趙麗宏·趙翼如·曹明華·張潔·韓靜霆·張抗抗·馮驥才 등 일단의 작가들은 의식적으로 모더니즘 기법을 응용한 산문 작품을 창작했다. 예컨대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한 <在那綠草地上>(張

4) 傅德岷, <新時期散文概覽>, 《錦州師院學報 哲社版》 1992-4, 錦州, PP.62-67. 참고.

潔)·〈迪斯科旋風〉(韓靜霆), 암시·상징·우의를 운용한 〈地下森林斷想〉(張抗抗)·〈珍珠鳥〉(馮驥才)과 같은 작품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심미적 지평을 열어 주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나중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이른바 ‘신조산문’으로 이어졌다.

신조산문은 기존의 산문 틀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회고의 종결’과 ‘서정의 해체’를 선언하고 ‘이성의 샘물’과 ‘혼돈의 자아’를 추구하고 ‘독백·조롱·회화화·블랙유머’ 등을 내세운다.<sup>5)</sup> 이러한 신조산문의 특징은 대략 내용, 형태, 언어의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6)</sup> 첫째, 내용면에서는 현대인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내향화를 추구하는데, 〈我與地壇〉(史鐵生)·〈靜夜功課〉(張承志)·〈换位〉(馬輝) 등의 작품에서 처럼 현대인의 시각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색, 삶의 의미에 대한 탐색, 인간의 존재 상황에 대한 감수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生命的漂泊〉(鹿子)·〈孤獨〉(匡文留) 등과 같이 귀속처를 상실한 현대인의 방황·고독 등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둘째, 형태면에서는 객관세계는 내심세계의 대응물일 뿐이라는 전제하에 주체의식과 주관적 표현 및 예술 형태의 새로운 창조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사실적 산문을 거부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문과는 달리 사유의 즐거기가 분명하지도 않고 또 구성도 그리 치밀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상징·암시·변형·이미지·몽환·의식의 흐름·부조리 등의 수법을 응용하면서 단편적인 언어의 연결과 사고의 비약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예컨대 〈並非夢幻〉(斯好)·〈這種感覺你不會懂〉(胡曉夢) 등은 블랙유머적 수법을, 〈午夜의 鞍子〉(張承志) 등은 상징주의적 수법을, 〈黑色狂想〉(葉天蔚) 등은 시공의 초월을, 〈遠景與近景〉(李彬勇) 등은 마환현실주의적 수법을, 〈自己的夜晚〉(劉燁園) 등은 의식의 흐름 수법을, 〈大地上的事情〉(葦岸)·〈夢游〉(曹曉冬) 등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수법을 각각 운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또 시·소설·영화·음악·미술·건축 등의 이웃 예술의 다양한 요소를 흡수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 셋째, 언어면에서는 낯설게하기라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중 비교적 분명한 현상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惶惑六重奏〉(樓肇明)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감각언어와 추상언어 및 치열한 정서가 결합된 산문언어의 지성화요,

5) 《群山之上 — 新潮散文選萃》,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2)의 편자인 老愚는 〈選編者序〉에서 신조산문이 전통적인 산문과 다른 점을 상기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6) 일부 景秀明, 〈風景 這邊獨好 — 新潮散文側論〉, 《當代文壇》 1995-1, 成都, PP.11-15. 참고.

다른 하나는 <第九只蘋果>(張佩星)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산문언어의 기의와 기표간의 불확정성이다.

### 자아산문

신시기에 들어선 이래 산문은 개체로서의 인간에 주목하여 자아의 표현과 주체성의 강화라는 경향을 보이면서, 애도산문·인성산문 등이 출현했다. 하지만 <隨感錄>(巴金)을 대표로 하는 이들 산문은 엄격히 말하자면 대부분 외부 세계에 대한 자아의 감수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인간 자체에 대한 탐구,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발굴, 자아의 적극적인 표현을 주로 하는 산문들이 다량으로 출현하게 된다. 이것이 곧 이른바 ‘자아산문’으로, 산문을 쓰는 것은 “완강하게 자신의 자아의식을 표현하여” “울고·욕하고·질타하고·부르짖고” 하면서 “가슴속의 울분을 뱉어내고 마음속의 비밀을 토로할 수 있다”고 주장한 王英琦의 말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대표한다.<sup>7)</sup>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관적이고 내향적인 문체적 성격을 견지하고, ‘내 우주’(감성·내심 세계)는 비할 데 없이 광활하고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층의 ‘인성’의 오묘함의 탐색과 자아 ‘생명체계’의 서술이라는 길을 견지하고자 하는 것이다.<sup>8)</sup> 예컨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추구와 그 정신적 고뇌를 토로한 <我遺失了什麼>(王英琦), 애정에 대한 집착과 이에 따른 내심의 갈등을 솔직히 고백한 <我也這樣叫她: 惠>(傅天琳),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성과 그로 인한 내심의 감수를 공개한 <不能破譯的密碼>(葉夢), 한 젊은 여성의 인생에 대한 탐구의 궤적을 보여준 <一個女大學生的手記>(曹明華), 이미 삶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자신의 병중 심리상태에 대한 가식 없는 언술을 통해 인간의 생로병사와 회로애락의 의미를 사색한 <病榻囁語>(冰心) 등이 다 그러한 작품에 속한다. 이들 작품은 창작의 개인성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습관적인 신변의 잡사에 대한 표층적인 서술에 그치지 않고서 현대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내심세계를 바탕으로 인간의 풍부한 정감세계·내심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비록 외부세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적 면모를 드러내준다는 의미에서 중국 사회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7) 吳秀亮, <回歸與超越 — 從兩個散文高峰的比較談新時期散文>,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1994-5, 北京, P.254.에서 재인용.

8) 劉錫慶, <我看新時期散文>, 《文論報》, 石家莊, 1993.06.05.



신시기 중국 산문에서의 개성의식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여성산문

1980년 후반 이후 또 한 가지 소홀히 할 수 없는 산문 현상은, 자아산문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여성산문’의 대두다. 여성산문의 등장은 198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여성산문이란 단순히 여성산문가가 창작한 산문 작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존재의식과 여성 특유의 삶과 정신적 세계를 표현한 산문 작품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사회적 분위기, 인성 추구의 사조 대두, 이른바 ‘문화붐’의 고조, 여권주의를 포함한 서방문화의 유입 …… 등의 영향하에서, 당시 여성들은 여성 자신의 자아 가치·남성과의 관계·가정에서의 역할·사회에서의 지위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바로 이같은 여성의 자아관·애정관·가정관·사회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산문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向戈壁>(王英琦)·<寫不出履歷的人>(王英琦)·<永遠的女孩子>(王英琦)·<今夜我是你的姑娘>(葉夢)·<不能破譯的密碼>(葉夢)·<暈海的“蜜月之輪”>(葉夢)·<讓我全心全意醉一次>(張愛華)·<釣魚>(張愛華)·<我和我的丈夫>(鄭雲雲)·<這一片女兒情緒>(梅潔)·<相逢在人生途中>(李佩芝)·<知道季節的消息>(李佩芝)·<心靈速寫>(斯好)·<女孩子的花>(唐敏) 등과 같은 작품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여성산문은, 처음에는 애정과 혼인 문제에 관한 산문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과 관련한 사소한 일상사나 감정 변화에 관한 잡다한 문제들을 다루는 낭비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체험과 내면적 세계를 세밀하고 민감하게 표출함으로써 상당한 호응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차츰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讓我全心全意醉一次>(張愛華)·<釣魚>(張愛華) 등 처럼 여성과 남성의 위치를 재조명한다든가, 혹은 <今夜我是你的姑娘>(葉夢)·<不能破譯的密碼>(葉夢) 등 처럼 그 동안 회피해왔던 성적인 문제까지 다루면서 그들 자신의 특유한 예술적 성취를 일구어냈다. 특히 근래에는 <渴望雨季>(蔣華)·<女人的井>(郭驥)·<無名街角>(周佩紅) 등처럼, 기발한 착상과 독특한 체험을 가지고서 더욱 생동적으로 여성적 풍격의 창조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 대산문

신시기 산문은 지난 시기의 정치 우선적 조류에 반발해서 점차 ‘참됨’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는 또 이런저런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즉 시대와 삶에 대한 관심이나 문학과 민중의 관계에 대한 추구는 진부하고 표피적인 것이라고 간주되고, 주관적 자아에 대한 탐구와 예술적 개성의 강조는 종종 외부와의 관련이 단절된 채 극히 개인적인 세계에만 한정되는 추세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시대적 분위기와 정신이 결여되고 활기와 예리함이 결핍된 나약하고 미시적인 산문이 대량 창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자 林非·傅德岷·賈平凹·辛憲錫·葉公覺 등은 이른바 ‘대산문’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賈平凹는 “최근 들어 나의 산문은 약간 변화가 있는데 이전의 작품과는 다르다.”(<瞎摸索與新局面>) “나는 이미 이전의 산문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제재를 확대해서 이 시대의 사회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산문에 마땅한 힘을 갖도록 하기에 진력하고 있다.”(<人迹跋>) 산문이 “요구하는 힘과 경도”는 “주로 더 큰 경계로, 개인의 우주 인생에 대한 감응이 있어야 한다”(<瞎摸索與新局面>)라고 주장했다.<sup>9)</sup>

다만 이러한 대산문의 개념은 아직도 모호하여 각자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辛憲錫은 주로 산문의 기백에 주목하여 “대산문의 대를 분량의 많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주로 제재 배경의 광대함, 내용의 폭넓음, 착안의 거시적임, 작품의 구성의 큼, 행문의 기세의 대단함, 감정의 힘의 다대함을 가리키는 것이다.”(<能否營造“大散文”>)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葉公覺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이해를 동시 병존시킬 수 있되” “학술 논문·정치보고·과학기록 따위의 글은 산문이라 할 수가 없다” “‘문학성’을 갖추어야 한다”(<九十年代散文面面觀>)고 말하면서 산문 형식의 포용성에 주목하고 있다.<sup>10)</sup> 요컨대 그들은 산문의 범주가 확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폭넓은 시야와 역동적인 필력으로 산문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산문은 비교적 이론적 차원의 성향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9) 인용문은 吳周文, <90年代: 中國散文現在時>, 《揚州師院學報 社科版》1995-1, 揚州, P. 3. 및 周政保, <憂柔的月光 — 賈平凹散文的閱讀筆記>, 《上海文學》1991-12, 上海, P. 70에서 재인용.

10) 辛憲錫과 葉公覺의 주장은 葉公覺, <九十年代散文面面觀>, 《當代文壇》1995-1, 成都, P. 10.에서 재인용 및 인용.

## 학자산문

1990년대에 들어와서 작품 창작면에서 대단히 주목을 끄는 한 가지 현상은 이른바 ‘학자산문’이다.<sup>11)</sup> 학자산문은 기존의 산문이 서정적이고 자기고백적인 반면에 이성적이고 사변적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작가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수양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문화적 품위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확실히 수필에 가깝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산문은 물론 1980년대의 楊絳·季羨林·馮其庸·林非 등과 같은 일단의 학자 산문가들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예컨대 다양한 제재를 통해 봉건적 구문화 비판과 현대적 신문화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林非의 산문에는, 그의 박학한 지식·이지적 사고·문화적 품격 및 성실하고 포용적인 인격이 한데 깃들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문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조류로 형성된 것은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로 보인다. 예를 들면, <清潔的精神>(張承志)·<也愛黃昏>(顧驥)·<求道者的悲歌>(王英琦)·<我與地壇>(史鐵生)·<蔓絲藕實>(雷達)·<一個王朝的背影>(余秋雨)등의 작품이 이에 속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余秋雨의 《文化苦旅》에 실린 많은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산문의 시적인 경계와 철리적인 사변의 결합을 추구하면서, 구속 없는 자유로운 내심의 토로와 독자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는 지적인 대화를 시도한다. 다시 말해서 동서고금에 걸친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생의 의미와 궁극적 목적을 향한 탐색을 독자와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작품은 지나치게 이성적이거나 현학적인 느낌을 주거나 장황한 사실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는 결합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劉錫慶 같은 사람은 이러한 학자 산문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내심세계·정감세계를 표현하는 산문 즉 주관적·내향적·서정적·내심서술적인 심미 특질을 지닌 이른바 ‘예술산문’을 주장하기도 한다.<sup>12)</sup>

## 통속산문

1990년대에 들어와서 작품 창작면에서 대단히 주목을 끄는 다른 한 가지 현상은 이른바 ‘통속산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경제적·문화적 수준의

11) ‘학자산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자가 쓴 산문이라는 뜻은 아니며, ‘문화산문’이나 ‘사변산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2) 劉錫慶, <我看新時期散文>, 《文論報》, 石家莊, 1993.06.05.

향상에 따른 대중의 문화적 욕구 상승, 업무 강도 및 경쟁의 강화에 따른 정신적 휴식의 요구, 생활 리듬이 급박해짐에 따른 편의성 추구, 상업적 사회 분위기에 따른 배금주의·감각주의적 경향 등은 중국 대륙에 통속문학의 번창을 가져왔다. 애정·탐정·무협·공상과학류 소설의 유행은 바로 그 단적인 예다. 산문 분야에서도, 비록 소설에 비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1990년대에 들어 성행하고 있는 일상 생활적이고 여가 오락적인 통속산문이 그것이다. 통상 신문 잡지의 무슨 「尋常百姓家」·「生活大觀園」·「都市風景」·「繽紛校園」·「文化茶座」·「過去的歲月」 등의 소재목 난에<sup>13)</sup> 발표되는 이들 산문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 삶과 경험을 소재로 하여 그들의 평균적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산문은 유사한 체험과 사고를 가진 보통사람들의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상당히 열렬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산문들은 가식적이지 않은 진솔한 내용과 거리감이 없는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산문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또 그 영향력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그런 반면에 전반적으로 보아 양에 비해서 질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서 지나치게 중언부언한다든가 시정의 저속한 화제를 가지고서 일시적 흥미만 불러일으키려 한다든가 하는 식이어서, 예술적 완성도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손색이 있는 일종의 '인스턴트 산문'이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sup>14)</sup>

상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 말에 상흔산문이 중국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작된 신시기 중국 산문은,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 차츰 다양한 형태의 산문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신시기 중국 산문은 문학의 여타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비교적 침체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개인의 반성과 민족적 반성, 개인의 비판과 사회적 비판을 결합시킴으로써 중국 현대산문사에서 이정표가 되는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巴金的 《隨想錄》이라든가, 90만 부나 출판될 정도로 열렬한 호응을 받은 曹明華의 《一個女大學生的手記》와 같은 작품집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산문 전문 간행물이 《散文》·《散文世界》·《隨筆》

13) 傅德岷, <論市場經濟與散文的“雅”“俗”分流>, 《西安日報》, 西安, 1995.10.05. 참고.

14) 葉公覺, <九十年代散文面面觀>, 《當代文壇》 1995-1, 成都, PP.7-10.은 이러한 산문을 일컬어 대중산문·통속산문·생활산문이라고 하면서 그 결점을 지적하여 '인스턴트산문'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등 불과 수 중에 불과하고 특별히 주목을 받거나 논쟁의 대상이 된 작품이 거의 없었으며, 예술적인 새로운 시도면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다소 뒤쳐졌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여성이면서도 호쾌한 풍격으로 이름이 있는 王英琦마저도 당시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문학계의 지도층과 평론계의 인사들이 청년 소설가들을 뜨겁게 관심함과 동시에 우리들 청년 산문가에 대해서도 격려의 눈길을 던져 줄 수 있기를!”<sup>15)</sup>이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이에 1986년경부터 이후 수년간 신시기 산문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1) 산문은 현재 침체해 있으며 이는 장차 그것이 해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王干·費振鍾·黃浩 등의 사람들과 (2) 이와는 전혀 반대로 산문은 실상은 전혀 침체해 있지 않으며 그것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林道立·汪帆·萬陸·高建國·傅德岷 등의 사람들, (3) 그리고 산문의 침체적인 면모와 그렇지 않은 면모를 구분해서 보면서도 산문의 발전에 비교적 낙관적인 林非·吳周文·沈天鴻·陳聖樂·姜建·陳劍暉 등의 사람들 사이에서, 단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논쟁이 있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 판단해 보면 결과적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한 바가 어느 정도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1990년대에 이르면 산문 분야가 상당한 성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는 《散文(海外版)》·《中華散文》·《當代散文》·《美文》·《散文天地》 등 새로운 산문 전문지가 추가되고, 《十月》·《收穫》 등 저명 문학지가 산문 게재에 중점을 두는 가 하면 각종 신문 잡지에 산문 게재 비율이 높아지고, 산문 선집·전집·개인작품집이 대량으로 출판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 문학 전반에서 모더니즘문학이나 뿌리찾기문학이 성행할 바로 그 즈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신조산문’·‘자아산문’·‘여성산문’·‘학자산문’ 등이 차츰 발전해나가서 1990년대에 이르면 중국 산문이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3. 신시기 중국 산문의 특징적 변모

#### 자아의 회복 및 토로

서방문학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통산문의 의식을 초월하고자

15) 王英琦, <面對寂寞的散文世界>, 《文學評論》 1987-3, 北京, P.162.

노력한 초기 현대산문에 나타난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개체로서의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각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郁達夫는 “현대 산문의 최대 특징은 각 작가의 각 작품 속에 표현된 개성이 이전의 어떠한 산문보다도 강하다는 것이다”<sup>16)</sup>라고 평가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거둬되는 난국 특히 항일전쟁이라는 위기 상황과 서방문학의 수용에 대한 비판적 경향의 점중, 마르크스주의 문예관의 영향 확산, 전통적인 ‘文以載道’ 사상의 부활 등으로 인해 문학의 정치적 도구화 경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 산문은 차츰 집체로서의 인간의 강조와 외부 세계에 대한 언술로 선회하게 된다.

이러한 기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다만 한국전쟁이 종결되고 전쟁이 없는 본격적인 건설의 시기에 접어들자, 이제 산문이 표현해야 할 것은 대체로 극적인 소재가 아닌 평시의 평범한 사안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이나 심리적 상태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해졌고, 따라서 그간의 비교적 단일한 주제·체재와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서술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초기 현대산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의 ‘산문 부흥’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산문 부흥’의 구호하에 진행된 실제 작업의 결과는 산문 작품의 양산을 촉진한 것과 이른바 ‘의경의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산문의 ‘詩化’ 현상이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산문의 정치 공리 관념과 집체 의식을 핵심으로 하는 심미 구조는 여전했고, 단지 당시의 정치 및 사회의 밝은 면을 찬양하는 ‘대주제’를 표현하면서도 이전 산문의 노골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묘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관적 서정을 개입시키는 중국 고대산문의 예술 전통을 이어받았을 따름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1950,60년대 산문의 심미적 골격은 기본적으로 ‘정치 + 詩意’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sup>17)</sup>

신시기의 중국 산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개성’·‘자아’·‘인도주의’와 같은 용어의 재등장과 함께 일어난 개체로서의 인간 회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산문의 전체적인 글쓰기 면에서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지만, 상흔산문과 인성산문에서 보이는 개체로서의 인간을 재규정하고 계급성과는 독립적

16) 郁達夫, <中國新文學大系 散文二集 導言>, 《中國新文學大系》, (上海: 上海良友圖書, 1935), P.5.

17) 일부 余樹森, 《中國現當代散文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3), PP.48-59. 참고.

으로 존재하는 인성을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곧 巴金의 《隨想錄》이었다. 이들 산문에서 巴金은 ‘참말을 말할 것’(<說眞話>)을 부르짖으면서, 자아해부와 자아분석을 바탕으로 문혁이란 역사적 비극의 근원을 탐구하고 그 책임의 일단을 자임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대부분 외부세계에 대한 ‘나’의 감수였을 뿐 자아의 내심 세계를 파고든 것은 별로 없었다. 특히 인간 자체를 탐구한 것은 더욱 그러했다.

그러한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張潔·宗璞·賈平凹·王英琦 등이 ‘개성’을 내세우고 ‘혼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부터였다. 특히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아산문은 자아 내심의 풍부한 세계의 표현을 산문의 최종적 심미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또 여성산문이 여성 특유의 내심 세계를 파고들면서 심지어는 여성의 성적인 문제까지도 서슴없이 다룬 것이라든가, 신조산문이 내용면에서는 현대인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내향화를 추구하고 형태면에서는 주체의 식과 주관적 표현 및 예술 형태의 새로운 창조를 강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져 비교적 일반화되었고, 심지어 ‘문학은 자아 세계 이외의 세계는 표현할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마저 나올 정도였다.<sup>19)</sup> 요컨대 이제 중국 산문은 1980년대의 정치 공리적 형태의 외부 세계에 대한 자아의 관조에서도 벗어나서, 창작의 개인성과 창조 주체의 진실한 표현을 심미적 목표로 삼으면서, 자아의 심층적 정신 세계의 탐색을 추구하는 자아 토로적 산문의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주제의 입체화와 복합화

신시기 중국 산문에서 개체로서의 인간 가치가 긍정되면서 자아가 회복되고 자아 토로적인 추세가 강하게 나타난 것은, 주제(그리고 제재)의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의 산문은, 서쪽의 내지에서 동쪽의 해안까지, 북방의 국경에서 남방의 어촌까지, 혹은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들녘이나 광산까지,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무실이나 병영까지, 그 제재가 얼마나 광범위하든 간에 실제로는 사회적인 대주제를 표현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신시기 산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대주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나 현재적인 삶의

18) 박난영, <巴金의 《隨想錄》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7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1994.12., PP.391-412. 참고.

19) 李孝華, <散文作家的「自我自由」餘「自我限制」>, 《當代文壇》 1990-4, 成都, PP. 14-17. 참고.

여러 가지 양태나 내면적인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개체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표현하고 있다. 말하자면 주제의 입체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주제 문제와 관련해 볼 때, 신시기 중국 산문에는 또 주제의 복합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전의 중국 산문에는 일반적으로 주제의 명확화·집중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蕭雲儒가 <形散神不散>(《人民日報》1961. 05. 12.)에서, 산문은 “중심이 명확하고, 치밀하고도 집중적이어야 하며” “한 글자 한 글자가 구슬처럼 주제를 꿰뚫어야 한다”<sup>20)</sup>라고 한 말은 바로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다. 작품의 주제가 명확하고 집중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주제 제시의 한 가지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분산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특정한 주제를 갖지 않으면서도 그 내함 및 외연이 풍부하여 감동력과 계도력을 갖춘 작품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신시기 중국 산문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예컨대 賈平凹의 <商州又錄>·<現代人眼中的大千世界>와 같은 작품은,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아마도 작가 자신조차도 한두 마디로 대답할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심미적 쾌감과 깨달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sup>21)</sup>

### 구조의 다층화와 복수화

신시기 산문에 주제의 입체화와 복합화가 나타난 것은, 신시기 산문이 그동안의 단일화·단선화에서 벗어나 다방면에서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신시기 산문의 다양화는 구조의 다층화와 복수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1950년대 이래 20여 년간 산문계를 지배해 온 ‘形散神不散’과 ‘物-人-理’(또는 景-情-理)식의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했다.

‘形散神不散’이란, 제재 선택·서술 방법·구성 방식·사조 전개는 자유로워야 하고, 주제·정신은 명확하고 집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物-人-理’관,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경물을 묘사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작자의 정서를 쓰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시하고자 하는 ‘도’를 밝힌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작법 자체는 그 나름의 일정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수 십 년간 중국 산문계를 지배하면서 산문의 단일화·단선화에 지대

20) 林非, <散文創作的昨日和明日>, 《文學評論》1987-3, 北京, P.39.에서 재인용.

21) 李孝華, <新散文的審美特徵和成因>, 《散文》1989-2, 天津, PP.44-46. 참고.



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1987년 林非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통용되던 ‘形散神不散’이란 논리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그 부정적 작용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산문 작법의 다양화를 주장했고,<sup>22)</sup> 이후 그의 이러한 주장은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이론가들이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개진했다.

산문 작법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다양화를 추구하는 노력은 이처럼 이론계에 의해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비록 명확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창작 방면에서 이에 대한 실천적인 작업이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의 최고 경지는 무기교”<sup>23)</sup>라고 생각한 巴金이 《隨想錄》에서 삶과 역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한 것이라든가, 孫犁가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통해 일견 평이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진 산문을 창작한 것은 바로 그러한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객관적 시공의 논리에 따르거나 주관적 사유 진행의 논리에 따르는 순차적이고 평면적인 구조에서, 작가의 내심과 정서의 유동에 따르는 무순서적이고 입체적인 구조로 전화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즉 인물과 사건의 발전 변화 순서에 따른다거나 기승전결이니 수미상관이니 하는 식의 이성적 사유 순서에 따르지 않고, 그 대신 내재적인 의식의 흐름을 따라 전개된다거나 시공이 교차하는 그물망식 구조를 사용한다거나 몽타주의 기법을 사용한다거나 …… 하는 식인 것이다. 예를 들면 劉燦園의 <自己的夜晚>은 작가 내심의 복잡한 정서적 유동에 따라 무수한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밀려오면서 시간과 공간이 종횡으로 교차하는 퍼즐식 구조로 되어있다. 또 陳慧瑛의 <勁松三劉>는 세 사람의 이웃에 대해 묘사한 작품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뚜렷한 줄거리도 없고 시공의 순서도 없으며, 제제의 안배면에서도 각 부분이 병렬적이고 독립적이면서 그 각 부분에서 상호 관련된 사실과 현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한 인식과 깊이 있는 감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작가가 여러 가지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賈平凹가 그러한데, 그의 <丑石>은 글의 말미에 주제를 밝히는 ‘卒章顯志’ 식의 구조이고, <秦腔>은 시공이 교차하는 그물망식 구조인가 하면, <月迹>·<雲雀>·<一匹駱駝>·<鳥窠> 등은 발단-전개-절정-반전-결말을

22) 林非, <散文創作的昨日和明日>, 《文學評論》 1987-3, 北京, PP.37-44.

23) <巴金談文學創作 — 答上海文學研究所研究生問>, 《文學報》, 上海, 1982. 04. 01.

따르는 이야기식의 구조이고, <冬景>·<商州又錄>은 영화의 몽타주식 구조이다.<sup>24)</sup> 심지어 원로작가인 何爲의 경우에도, <臨江樓記>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수법을 사용했지만, 그 후 <春夜의沉思和回憶>에서는 일종의 입체 교차적인 구조를, <東京夜話>에서는 영화의 몽타주 수법의 구조를 사용했다. 그 외에도 楊羽儀·趙麗宏 등 여러 산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구조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다.<sup>25)</sup>

### 詩化의 극복 및 주변 장르와의 교통

위에서 신시기 산문의 구조의 다층화와 복수화 등이 애초 ‘形散神不散’과 ‘物-人-理’식의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달리 말하자면 신시기 산문이 ‘산문의 詩化’ 또는 ‘詩意的 창조’라는 단일한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50,60년대에 그러한 구조를 사용한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정치 + 詩意’에 있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산문은 자연의 풍광을 묘사할 수도 있고, 일상 생활의 어떤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인간의 삶과 우주의 섭리에 대한 사색을 쓸 수도 있고, 내심의 회로애락과 동경과 추구를 토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산문은 산문의 특징적인 자유로운 필치 외에도, 시처럼 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때로는 소설이라든가 또는 극이나 영화처럼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신시기 산문은 이런 면에서도 그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었다. 산문의 소설화는 그 중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현상으로, 張辛欣의 <回老家>와 같은 작품은 서사적 얽어짜기와 인물의 창조 방식을 참고하고 있으며, 姜德明의 인물 산문들은 소설적 구조와 분위기 창조의 장점에 힘입고 있다. 王英琦의 문화적 기분이 농후한 산문의 골간에는 잠감 의문의 예리함과 보고문학의 열렬하고 씩진한 맛이 스며있고, 賈平凹와 鮑爾吉·原野와 余秋雨의 일부 산문은 각각 속사화·잠감화·수필화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 何爲의 <東京夜話>와 같은 작품은 영화의 몽타주 기법과 카메라의 원근법을 참고한 산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산문의 詩化 현상도 없지 않아서 徐開壘의 <懷念中歡聚>와 같이 어떤 작가는 시적인 요소와 시적인 구조 방법을 사용했고, 曹明華의 《一個女大學生的手記》 중의 여러 작품은 아예 산문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한 산문시식의 작품이다.<sup>26)</sup>

24) 張光全, <評賈平凹의 散文創作>,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1990-8, 北京, PP.215-218. 참고.

25) 陳劍暉, <論新時期散文藝術的發展—兼與“散文消亡論”商榷>, 《新東方》 1992-1, 海南, PP.51-56. 참고.

산문의 이웃 장르와의 교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화’와는 다른 측면에서 여전히 산문의 詩意를 추구하는 작품도 없지 않았다. 예컨대 賈平凹의 《愛的踪跡》·《心迹》·《商州散記》 등의 작품집 중의 작품이라든가, 宗璞의 <哭小弟>·<霞落燕園> 등 많은 작품은, 표현수법에서 정신적 내핵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의 풍격과 기풍이 가득했던 것이다.<sup>27)</sup> 그러나 이 역시 이전과 동일한 차원의 것은 아니었다. 즉 외재적이고 개별적인 글자·구절·단락이 詩意와 관련이 있다고 특정할 수 없는 가운데, 내재적인 선율·잠류·정신이나 분위기가 바로 詩意를 구성하는 식이다. 특히 모더니즘적 기법을 도입한 일부 작품은 이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징·암시·은유 등 각종 표현수법을 사용하여 주관 서정의 유동과 잠재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을 시도하면서 더욱 함축적이고 더욱 풍부하게 ‘詩意’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葉夢의 <不能破譯的密碼>·<期待篇>·<月之吻>·<夢中的白馬>·<今夜我是你的姑娘>·<夜的青藤> 등은, 객관적 묘사나 전통적인 서정·의론 대신 은유·상징·암시성이 충만한 이미지의 대량 사용을 통해 더욱 내재적이고 함축적인 詩意를 표현하고 있다.

### 수법·체재의 다양화와 글쓰기 스타일의 중시

문예의 이웃 장르와 교통하면서 다층적이고 복수적인 구조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표현 수법면이라든가 그 외 기술적인 처리면에서의 다양화 역시 필수적일 것이다. 신시기 산문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도 많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변화는 앞에서 이미 누차 거론한 대로 상징·은유·의식의 흐름·부조리·마환·블랙유머 등의 서구 모더니즘 계열의 기법을 응용한 것이다. 즉 그들은 상징 변형을 통해 삶을 다시 그리고 우의적 초월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세계를 건립했고, 의식의 흐름수법을 채택하여 깊이 있게 파헤침으로써 내심세계의 풍부성을 표현했고, 부조리수법을 운용하여 부조리에 진실이 깃들게 하고 실재를 파괴하고 가상을 창조해냄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모습을 비추어냈고, 블랙유머를 통해서 깊은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삶의 중층적 흐름을 표현했다.<sup>28)</sup> 그들은 또 영화의 몽타주 기법이나 카메라의 원근

26) 이상 金漢 馮雲青 李新宇 主編, 《新編中國當代文學發展史》, (杭州: 杭州大學出版社, 1992), PP.401-410.; 劉錫慶, <我看新時期散文>, 《文論報》, 石家莊, 1993. 06. 05.; 羅守讓, <關於散文的審視·評估和反思>, 《文藝報》, 北京, 1994. 03. 12. 참고.  
27) 羅守讓, <關於散文的審視·評估和反思>, 《文藝報》, 北京, 1994. 03. 12.

법을 응용하는가 하면 음악·회화와 같은 다른 예술의 표현 기교를 가져와 신시기 산문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巴金이나 孫犁의 경우처럼 무기교의 기교를 시도한 것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산문의 형태면에서도 일반적인 서술의 형태 외에도 대화체·고백체·어록격언체·일기체·서신체·우언체·서평체……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 산문 작품의 인칭 면에서도 그 동안의 1인칭 위주에서 2인칭이나 3인칭의 사용이 늘어나는가 하면, 심지어는 <更爲富有的一刻>(曹明華) 처럼 한 작품 안에 세 가지 인칭이 종합적으로 운용되기도 한다.

이런 기법이나 형태의 변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신시기 산문에 글쓰기의 스타일이 중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글쓰기 스타일의 추구면에서 賈平凹·謝大光이나 林非·楊羽儀·趙麗宏·喻大翔 등과 같은 사람은 비교적 분명하고 의식적인 반면에, 葉夢·郭小東·羅強烈·趙玫 등과 같은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분명하고 의식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통상적인 일상 언어에 대한 일탈과 변이를 통해 자기 나름의 글쓰기 스타일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 중에서도 비교적 눈에 띄이는 현상으로는 대략 다음 몇 가지가 있다.<sup>29)</sup> 첫째는 문언·서양어 성분의 뒤섞임이 만들어낸 ‘난삽한 맛’이다. 예컨대 賈平凹의 <讀書示小妹十八生日書>라든가 <敦煌沙鳴沙記>가 그렇다. 둘째는 문장부호(주로 구두점)의 고의적인 증가나 생략으로 어세의 리듬감을 약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卞卡的 <那村·那人·那塘>이 그렇다. 셋째는 언어의 특수한 용법으로 일종의 특수한 분위기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黃曉萍의 <山狗吠月>이다.

## 기타

신시기 산문에서 개체로서의 인간의 가치가 재금정되고 더 나아가서 자아의 적극적인 토로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왜곡되는 현상도 없지 않았다. 주관적인 자아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객관적인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몰각하고 의도적으로 현실 세계와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결핍되면서 실감을 상실한 허위적 감정의 조작에 불과한 작품들이 적지 아니 등장한 것이다. 예컨대 아무런 심미적 쾌감이나 사상적 영감을 주지도 못하면

28) 傅德岷, <散文創作的新崛起>, 《重慶社會科學》 1991-1, 重慶, P.57.

29) 余樹森, 《中國現當代散文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3), P.75.

서 그저 습관적으로 자연풍광을 그리거나 표일한 정서를 서술하는 것이 그러하다. 영혼의 진실한 울림이 결여된 오로지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사변으로 점철된 일부 학자산문도 그러하다. 또 현대적 의식과 관점을 갖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과거의 경직된 사고와 시각으로만 현재의 중국과 중국인, 나아가서 오늘날의 세계와 인간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心弦叮咛》 등 이미 수권의 산문집을 출판한 羅先霖의 글이 대표적이다.

신시기 중국 사회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라든가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상업적이고 감각적인 풍조의 확산을 초래하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앞서 말한 왜곡된 자아 팽창과 더불어서 신시기 산문에 일종의 대중 영합적 경향이 생겨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상 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소한 사안이나 감정을 가지고서 과도하게 침소봉대한다거나, 독자의 고정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진부한 속물적 주제·제재·작법을 남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예는 여성산문이나 생활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 다수 산문 작가는 전업 의식이나 예술적 추구력이 비교적 결핍되어 있어서, 치열한 적극적인 새로운 시도도 없이 구태의연한 표현방식이나 구조를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예술적 수양과 사상 정서의 심도가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초기 현대산문의 대가들이 대부분 중국어문에 대해 상당한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에, 賈平凹라든가 하는 일부 뛰어난 작가를 제외한 신시기의 많은 산문 작가들은 대체로 이 방면에서 소양이 전보다 못한 듯하다. 이에 따라 중국 산문의 전통에 대한 비판적 계승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알아 본 것처럼, 신시기 중국 산문은 (1) 1976-1985 (2) 1986-1989 (3) 1990-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개성화·다양화·개방화 등의 특징적 변모를 보여 주고 있다. 신시기 중국 산문의 이러한 변모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신시기 중국 사회의 전반적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오늘날 중국인의 사상 감정을, 그에 걸맞는 언어와 문학적 장치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이는 중국 산문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본다면, 그 골간에는 또 중국 산문의 ‘세계화와 민족화’의 추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문학의 현대화는, 인간의 세계에 대한 최선의 인식에 바탕하여 추구되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현대화 및 문화 현대화 등과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를 문학 분야에만 한정시켜 본다면 전통 문학의 비판적 계승과 외래문학의 선택적 수용 그리고 새로운 문학의 창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학의 세계화와 민족화간의 척력과 응력이 변증적으로 통일될 때 문학의 현대화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며,<sup>30)</sup> 이 점에서 신시기의 산문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시기의 중국 산문은 이러한 면모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의식적·선별적으로, 초기 현대산문까지 포함하여 중국 산문의 전통 계승과 서구 모더니즘을 위시한 외국문학의 영향 수용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자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문의 창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形散神不散’·‘物-人-理’식의 구조와 ‘托物言志’·‘借景抒情’식의 기법을 사용한 ‘情景交融’의 단선적이고 단일한 詩意의 추구는 거부하면서도, 상징·암시·은유 등 각종 표현수법을 사용하여 주관 서정의 유동과 잠재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을 시도하면서 더욱 함축적이고 더욱 풍부하게 ‘詩意’를 표현하고 있다; 서구 모더니즘적 요소를 도입하여, 상징·암시·변형·이미지·몽환·의식의 흐름·부조리 등의 각종 수법을 응용하면서 현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방향과 고독 등을 표현하는가 하면, 현대적 사상의 층차에서 민족문화를 돌이켜 보고 단절된 민족문화의 근원을 찾아내어 민족정신과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재건하면서 그 과정에서 역사적인 각성과 미적인 향수를 얻어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정치 공리 관념과 집체 의식을 핵심으로 하는 심미 구조를 통해 오로지 사회적 ‘대주제’의 표현만을 강제하던 지난 시기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자아의 심층적 정신 세계의 탐색을 추구하는 자아의 표현을 강조하는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개인의 좁은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사회 그리고 세계와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은, 신시기 산문의 전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

30) 이 말은 문학의 현대화에는 문학의 세계화와 민족화와의 변증적 통일이라는 추진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 문학의 현대화가 오직 그것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별 작가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신시기에 등장한 賈平凹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농밀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길러준 낙후하고 폐쇄적인 향토에 대한 사랑과 미련 그리고 현대적 도시 생활에 따라 생겨난 그러한 향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표현하는 가운데, “민족적 특색을 갖추지 못한 문학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문학이다. 마찬가지로 세계적 사상 의식과 상통하지 못하는 문학 역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문학이다.”(〈讀書雜誌摘抄〉)<sup>31)</sup>라는 의식에 입각하여 중국적 전통과 서양적 영향의 융합을 적극 시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도의 궁극에는 그가 의식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새로운 산문의 창조가 놓여있다.

그러나 신시기 산문의 세계화와 민족화에는 아직도 많은 여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세계화와 민족화(또는 현대화) 자체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몇 가지만 거론해 보자. 첫째, 개혁과 개방이라는 말, 특히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실험이라는 말이 대표하듯이 중국 사회는 현재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전되고 있고, 따라서 그전에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현상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산문 분야에서는 과연 이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의 생활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복잡해지고 있고, 개인주의화·감각주의화 경향의 대두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인의 사상과 감정이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에 있고, 중국인의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상승되고 그 문화적 욕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고, 외국인과의 접촉이나 외국 여행·위성방송 등을 통한 외국문화의 영향이 날로 다대해지고 있고, …… 등에 대해서 중국 산문가들은 어떻게 이를 형상화할 것이며, 그들의 그러한 노력은 세계문학에서 어떠한 역할과 작용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다. 둘째, 갈수록 증대되는 세계문화과의 쌍방향적 상호 작용에 대해 중국 산문가들이 작품의 창작은 물론 그 외의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번역 작업을 통한 외국 산문 작품의 소개를 통해 중국 산문에 세계적 요소를 흡수하고 또 그것을 민족화하는 한편 중국 고유의 요소들을 세계화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은 당연하거니와, 이와는 반대로 중국 산문의 적극적인 해외 소개를 통해서 세계문학계로부터 그 성과를 검증 받고 또 세계문학의 진전에 영향을 주는

31) 周政保, 〈憂柔的月光 — 賈平凹散文的閱讀筆記〉, 《上海文學》 1991-12, 上海, P.72.에서 재인용.

등의 역할과 더불어 이러한 작업의 과정에서 중국 산문 자체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노력은 비단 작품의 창작과 번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산문 이론계 역시 그 동안의 중국적 범위 내에서만 중국 산문을 검토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중국 산문과 외국 산문을 비교 검토하고, 비판적·선택적인 종적 계승과 횡적 수용의 원칙과 방법 및 그 대상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탐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문 작품의 창작과 그것의 수용을 이어주는 전달자 또는 전달매체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환언하자면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나날이 강화되는 출판·유통의 상업주의화라든가 하는 등등의 변화에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는 산문의 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요소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중국 산문의 발전에 중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0년대 중반 이후 산문이 약간의 저조 상황을 보였던 것이라든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상황을 보이고 있는 이면에는, 독자의 호응도를 고려한 출판사·신문사·잡지사의 고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게재를 결정하는 편집자들의 산문 관념이 일정 정도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산문의 미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자. 1980년대 중후반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산문의 미래에 대해서 회의와 우려를 금치 못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이러한 비판적 예측에 동조하지 않은 林非·傅德岷 등의 전망 그대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는 주로 산문이라는 장르 자체가 여타 장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할 것인데, 앞으로 왜 신시기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산문 특유의 유연성·편의성과 중국 산문의 유구한 전통 및 중국 사회의 문화적 향상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 산문은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며, 또한 그 발전은 '세계화와 민족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